

## 제3차 산업기술개발자금지원 용자대상사업자 선정

진흥회는 지난 5월7일 2002년도 제3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용자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개발과제는 ▲(주)유성테크놀러지스 라인-인터랙티브방식 고효율 대용량 UPS ▲동방중전기(주) 통신용 5MW급 전원공급 발전장치 개발 등 2개 과제 10억원으로 이들 개발사업은 용자금리 연

6.18%(변동금리), 용자기간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게된다.

아울러 진흥회에서는 전기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매월 1회 정도 자금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문의: 기술진흥팀)

## ASIAN ELENEX 2002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진흥회는 지난 5월9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홍콩에서 개최되는 ASIAN ELENEX 2002에 참가하는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스배정, 제출서류, 참가비용 및 운송관련 등 참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숙지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전시회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확대된 시장진

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지리적으로 근접지역인 홍콩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외환위기 극복이후 각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지난 2002년에 이어 올해에도 남성기업사, (주)젤파워, 오성기전(주) 등 10개 업체와 함께 참가하여 '한국 전기산업 홍보관'을 공동 운영한다.(문의: 통상전시팀)



## 전기기기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실시

진흥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전기연구원 교육실(의왕 소재)에서 관련 업계의 교육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제3차 전기기기 PL 전문가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3차례의 교육일정을 마쳤다.

이 교육은 진흥회에서 전기산업계의 PL대책 추진능력 배양과 전기기기 안전성 향상 도모 및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3월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PL 전문가양성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추진되는 교육사업으로 올해에는 10월까지 6차례(1회당 40시간 이수)에 걸쳐 실시되며, 2002년도에 총

180명의 전기기기 PL전문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진흥회에서는 지난 제1차(4.22-4.26) 및 제2차(5.13-5.17) 교육을 통하여 60명의 PL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보다 건실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반기 일정은 제4차(9.2-9.6) 교육을 시작으로 3차례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http://www.smba.go.kr)→PL교육지원신청) 또는 진흥회([www.koema.or.kr](http://www.koema.or.kr)→소식망)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된다.(문의: 기술진흥팀)

## 특허청과 전기기기 지적재산권업무협약 조인식 및 세미나 개최

진흥회는 지난 5월 30일 한국전기연구원(의왕시 소재)에서 전기업계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청과 “전기기기 지적재산권 업무협약에 관한 약정서”를 교환하고 이어서 업계를 대상으로 특허업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 전략(이우영 서기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제도, 특허기술 사업화전략(김영철 심사관)이며 진흥회는 국내 전기산업의 독자적 기술력확보와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적권 창출 및 사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특허청과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금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향후 진흥회는 제4분과협의회(전기·전자)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며, 전기산업계의 지적권 출원, 권리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과 더불어 지적권 관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건의·개선·애로 및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여 특허제도·절차 및 특허관리, 신기술동향 관련 교육·세미나개최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인식 및 세미나 개최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이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자산임을 인식하여 급변하는 지식집약형 산업구조에 필요한 우리 전기산업계의 대처 능력 배양 및 대응방향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기술진흥팀)